

Cyber Clean Magazine 16년 2분기

# 국토사랑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차 례

1

알기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2

역사 속의 청렴이야기 (류관)

3

우리 소 청렴 동향

4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

5

만화로 익히는 청렴 지식

6

청렴 독후감

I 알기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직자는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됨

○ 공용물이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청사, 관용차량, 건설중기 등 사무용, 사업용 또는 주거용 물건을 의미하며, 사적 사용·수익이란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함



## 질의 응답

**Q:공용차량을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도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나요?**

A:직원들의 사기진작,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공용카드 사용에 따라 해당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임의 사용해도 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행동강령 제13조는 공무원이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직접적 이득 외에 간접적 이득 또한 공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항공 마일리지나 카드 적립포인트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도 예산 사용에 수반된 것이라면 공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역사 속의 청림이야기(류관)



'선초삼청 "하정 류관"  
1346(충목왕 2) ~ 1433(세종 15)

1346년(고려 충목왕 2년) 황해도 문화현에서 삼사판관 류안택의 아들로 태어났다.

처음에는 학자가 되려 했으나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괴로울때 일수록 올바른 벼슬아치가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뜻을 바꾸어 26세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그 이후 목민관으로 황해도 봉산 군수, 예문관 대제학을 거쳐 세종 때에 청백리로 뽑히고 79세의 늦은 나이에 세종대왕이 그의 학문과 인품을 아껴 우의정을 역임하게 된다.

## 조선초 청백리 류 관에 관한 일화

류 관은 우의정인데도 비가 새는 초가집에 살았다. 나라에서 받은 녹은 다리를 놓거나 길을 넓히는 일과 동네 어린이들의 먹과 붓 값으로 썼기 때문. 그런 그의 성품을 아껴 세종대왕은 종신토록 국록을 급여했고, 태종은 남몰래 그의 집 울타리를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장마때 천장에서 비가 줄줄새자, 우산으로 비를 막으며 부인에게 "이 우산도 없는 집에선 어찌 견디겠소" 라고 말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우산 없는 집엔 다른 준비가 있습니다." 라고 சொ아 붙이자 류관이 껄껄 웃었다고 << 필원잡기 >>는 전한다.

또한,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호미를 들고 채소밭에서 김도 매고, 벌레도 잡았다고 하며, 이 모든 것이 그가 정승으로 있을 때에도 하던 일이라고 하니, 평소 그의 소탈함과 청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세종대왕은 류 관 대감이 벼슬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그를 위하여 자주 음식과 물건을 보내 그의 공을 치하했으나, 세종임금이 보내는 맛있는 음식과 귀한 재물은 하루를 넘기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인 즉, 임금께서 어찬(임금님이 내리시는 음식)을 내리시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고, 아무리 귀한 임금님의 하사품 일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냐 가리지 않고 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류 관의 성품을 잘 아는 세종은 더욱 자주 하사품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류 관은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뽐내지 않았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편안함보다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류 관의 유훈은 "오가장물유청백 세세상전무한인(吾家長物惟清白 世世相傳無限人)"이라 한다.

**"우리 집안에 길이 전할 사물은 오직 청백이니, 대대로 이어 끝없이 전한다"**

3

우리 소 청렴 동향 (2016년 2분기)

○ 2016. 4. 12. 청렴도 향상 대책반 구성

- 우리 소 부패방지대책 관련 업무에 대한 심의 및 평가
- 주요 건설공사의 계약, 설계변경 등 건설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구성현황  
 위원장(운영지원과장), 내부위원(보수. 구조물과장),  
 외부위원(시민단체이동균, 이강운, 한경대학교 구자갑)

○ 2016. 4. 15. 청렴도 향상 실무단 구성

- 반부패 청렴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청렴 취약분야 개선, 잘못된 관행 개선 등
- 구성현황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운영지원과	홍근호 (청렴담당계장)	구조물과	김태현 (주무계장)
"	김진령 (계약담당)	"	조한근 (공사관련)
"	김동일 (보상)	"	이흥구 (과적단속)
보수과	김창선 (주무계장)	청렴지킴이	천동은 (노조지회장)
"	김상미 (공사관련)		
"	임재운 (도로점용)		



○ **2016. 4. 29. 청렴마일리지 운영 계획 수립**

- 반부패 청렴활동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청렴대책의 실효성 확보 및 획기적인 청렴도 향상 도모

※ 연말에 3명을 선정하여 10만원(1)/5만원(2) 상당의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2016. 6. 16. 청렴도 향상 대책반 간담회 실시**

- 일 시 : '16. 6. 16(목) 14:00~15:20

- 장 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 참 가 : 소장님, 청렴도 향상 대책반 위원,  
청렴지킴이 등(총 10명).



○ 2016. 6. 20.

## 청렴도향상 및 운행제한위반 원석운송차량 관련자 간담회 및 홍보 개최

- 일 시 : '16. 6. 20(목) 14:00~16:00
- 장 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 참 가 : 의정부국토(4명), 청렴지킴이(2명), 원석운송 관련자(4명),  
한국 도로공사(4명), 경기도 북부도로과(3명) 총:17명 참석



○ 2016.6.22.

## 청렴교육 및 청렴 토론회 개최

- 일시 : '16.6.22(수) 9:10~11:40
- 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 내용 : 외부강사초청 청렴 교육 및 소장님 주재 청렴 토론회



4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

어느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빵을 훔쳐먹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노인을 향해 "늙어 가지고 엄치없이 빵이나 훔쳐먹고 싶습니까?" 라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에, 노인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가 이 노인의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됩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뒤 방망이를 '땡땡땡' 쳤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인간적으로 사정이 딱해 판사가 용서해줄 줄 알았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왜 일인가.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나더니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 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그 벌금을 내는 이유는 그 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나는 그 동안 좋은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회하고 그 벌금을 대신 내어드리 겠습니다."

이어서 판사는 "이 노인은 이 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여 방청한 여러분 들도 그 동안 좋은 음식을 먹은 댓가로 이 모자에 조금씩 이라도 돈을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방청객들도 호응해 십시일반 호 주머니를 털어 모금을 했다.

그 모금액이 무려 47달러나 되었습니다

이 재판으로 그 판사는 유명해져서 나중에 워싱턴 시장까지 역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리야'판사라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정근의 사람농사 이야기, 효산록 2 [활불이 되소서]에서 나온 내용으로 참으로 감동적이어서 소개합니다

판사로서, 정해진 법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나름대로 다하면서, 재판을 받는 노인의 어려움까지 덜어주는 그 지혜로움에 감동을 받았고,

사회의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딱한 사정을 간과하지 않고 벌금을 대신 내주고

노인의 앞날까지 생각해주는 더불어 함께 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그 마음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노인이 배가 고파서 3일간을 굶었다고 하는 말에

본인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댓가로 벌금을 대신 내며

참회하는 그 모습과 자세에서도 진한 감동과 아울러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감동을 준 리야 판사와 같이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며, 참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어 가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5

만화로 익히는 청렴 지식

외부강의(회의) 신고

외부강의와 회의



알려라 권익본!

제17차 외부강의와 회의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공무를 떠나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주각을 나타내는 공무원 A씨는



특강과 외부강의 제안을 받고 고민하다가 근무 이외의 시간강의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의 일에 대해 겸직의 허락을 받는 것이



분필요하다는 생각에 책임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강의를 계속합니다. 이 사실이 후에 알려질다면 A씨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공무원이 댓가성 외부강의와 회의록 진행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면 당해기관의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A씨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거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다리미를 든 대통령

다리미와 대통령이라는 두 단어. 어색함과 동시에 그 둘의 연관성을 찾으려야 딱 떠오르지 않는 애매모호한관계의 의미였다. 이러한 점에서 책의 제목에서 부터 필자의 호기심에 있어 구미를 당겼다.

먼저 작가가 독자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내포돼 있기 마련인 제목의 글귀에 대해서 잠시나마 머릿속으로 혼자만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좀 더 음미를 하고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니, 넘기면 넘길수록 전혀 예상 밖의 내용들이라 책장을 덮을 때가 다 되어서는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부패'라는 꿈아 터진 악습에 관해서 독자들에게 과거에서부터 내려져온 전통의 역사와 여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보다 더 심층적인 심각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의 경종을 울리는 심오한 내용이었다. 책에서는 부패척결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공직자의 겸손함과 청렴을 핀란드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제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였는데, 필자는 이중적인 의미 또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구미를 피는 다리미라는 소재를 통해 부패척결을 논함으로서 마치 캠페인의 표어와 같이 뇌리에 박는 간결하고도 날카로운 표현이었다.

이 글을 읽는 내내 떨쳐지지 않고 결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요즘 가장 대두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니 한 기업,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한 개인의 욕심에 바탕된 잘못된 행동이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도 결국에는 이 책의 메시지에 반하는 행동에 기반해서 시작된 것이라 생각한다. 부패라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원시시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라는 틀 안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왔다. 개인의 욕심이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의 총대가 어긋나게 되면 그 구성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총대를 움직이는 이 또한 사회 구성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책의 글귀에서 인상 깊었던 글귀 중에 하나가 잘못된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 중의 하나가 소심함이라 하였다. 소심함? 어떻게 소심함이 유혹이라는 달콤함을 떨쳐낼 수 있단 말인가? 필자가 생각한 바로는 극단적인 표현인 소심함을 통하여 부패와의 대면조차를 아예 차단하고자 함을 말하려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 필자의 생각에서는 청렴과 올바른 가치관이 기초된 사리분별력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기르는 것이 임시방편책의 소심함보다는 본질적인 해결책의 전제조건이자 첫걸음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패라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응어리진 악습의 근절에 있어서 어떠한 시스템적인 해결책은 분명 통하지 않을 거라 보인다. 근절이라는 이상적인 상태를 갈구하기 보다는 점진적 축소에 대한 대책마련과 실행이 보다 더 본질적으로 부패를 없앨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패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나라 비극중의 하나인 IMF사태 또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전례 없는 사태해결로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때의 그 수모와 적극성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경험이다.

분명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는 필자 자신부터 청렴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각인 시켜 몸소 실천해나가 나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겸손과 친절함을 시작으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무기로 이와 재를 탐하지 않는 하나의 개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유치원생들도 아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라는 주체의식을 갖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책장 속안에 다리를 든 자국의 대통령이야기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마지막 여운을 남긴다.